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1.03.21 (통권340호)



경제이슈

2월 미국 소비자물가 큰 폭 상승
2월 고용 증가세 지속

경영노트

리스크에서 기회를 찾아라

사회 트렌드

체르니(Chernobyl)
10년차 연봉 가장 높은 직종은?

저널 브리프

경주 최부잣집에서 배우는 착한 성공의 비결

洗心錄

실패의 원인은 외면(外面)

□ 2월 미국 소비자물가 큰 폭 상승

- 미국 노동부(15일) 발표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
 - 상승률 추세 : 작년 7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었던 소비자물가는 작년 말부터 반등, 작년 12월과 1월 각각 0.4% 증가한데 이어 2월 0.5%의 상승률을 나타내어 2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
 - 근원 물가 :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여 전월과 같은 증가율을 유지
 - 식품 및 에너지 가격 : 식품가격은 전월대비 0.6% 상승했고 에너지 가격이 전월대비 3.4% 상승하여 전체물가지수 상승을 견인

- 최근 유가와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미국 전체 소비자물가가 큰 폭 상승하였으며, 근원 물가 상승률도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준이나 지난 9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인플레이 기대심리가 점차 고조.

□ 2월 고용 증가세 지속

-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취업자수는 국내경기 회복 흐름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
 - 취업자 : 산업생산·소비판매 및 수출 호조세로 제조업부문 중심으로 증가세 유지하며 취업자는 2333.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9만 명 증가
 - 실업자 : 전년도 ‘지역일자리 사업’ 채용규모에 비해, 금년도 모집규모 축소 영향으로 실업자는 109.5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4만 명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 : 활동상태중 ‘가사’ 증가의 영향으로 비경제활동인구는 1644.8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만 명 증가

- 최근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과 수출호조 및 내수회복에 힘입어 민간부문 중심으로 고용여건 개선 지속될 전망

□ 리스크에서 기회를 찾아라¹⁾

- 리스크란 미래의 변화를 의미하며 경영상의 위험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남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함
 -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리스크를 이해와 대응이 필요한 미래의 변화라기 보다는 회피해야 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 하지만 앞서가는 기업은 변화를 예측하여 대비하는 한편, 이 가운데서 기회를 포착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보다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음
- 리스크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경영 활동의 일부로 인식하고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 삼아야함

< 리스크에서 기회를 찾기 위한 원칙 >

	내 용
블랙스완을 찾아라	•대부분은 극단적 사건은 일어날 수 없다고 믿지만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을 뒤집으면서 경쟁우위를 창출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라	•1970년대 초 석유 파동 시나리오를 예측, 대비한 로열더치셸은 생산설비 증설에서 정제효율 개선으로 바뀌는 산업 변화를 선도
리스크의 파급 속도를 고려하라	•위기에 따른 파급 효과는 다양한 속도로 전개되며, 이를 고려해야 빠르게 지나가는 기회의 포착이나 민첩한 위기 대응이 가능
핵심 연결망을 관리하라	•경영 상 핵심 요소 간 연결망과 특정 요소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이해하고 대체 요소와 빠르게 연결·복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
실패의 잠재적 원인을 생각하라	•발생 가능한 실패의 유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찾아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함
정보 원천을 검증하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의미는 자체가 진실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정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보와 그 원천을 계속 검증해야 함
안전마진을 찾고 한계를 유지하라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유동성은 실수에 대한 여유가 없음을 의미하며 리스크 발생 시 안전마진의 한계를 찾아 유지하는 것이 중요
장기적 투자 기간을 설정하라	•장기 성과보다 단기 수익을 선호하는 기업은 성장이 불가능하며, 장기적 투자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
적절한 리스크는 감수하라	•경쟁 우위의 확보를 위해 어느 정도의 리스크 감수는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역량에서 수용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알아야 함

1) 본 자료는 ‘Risk Intelligent Decision-Making: Ten essential skills for surviving and thriving in uncertainty(Deloitte Review)’, ‘리스크는 가치창출의 원천이다(동아 비즈니스 리뷰, 2011. 3)’를 요약 정리함

□ 처머니(Chermany)²⁾

■ 중국(China)와 독일(Germany)를 합쳐 만든 신조어

- 지난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가 수출대국 1위 중국과 2위 독일(2009년)을 묶어 만든 말
- 중국과 미국을 합쳐 만든 차메리카(Chimerica), 중국과 인도를 합쳐 만든 친디아(Chindia)에 이은 신조어

■ 처머니엔 공통점이 많은데, 다들 글로벌 위기에 허덕일 때 수출로 벌떡 일어난 점이 같고,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점도 비슷

- 시사주간이 타임은 최근 “독일이 유럽의 중국이 됐다”고 평가

□ 10년차 연봉 가장 높은 직종은?³⁾

■ 경력 10년차 직장인들 가운데 금융 분야 종사자들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경력 10년인 직장인 9000여 명의 연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은행·보험·증권·투자 전문가 직군이 평균 8333만 원으로 가장 높았음
- 조사·분석·통계 관련 직종이 6000만 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광고·광고기획 5500만 원, 경영·기획·전략 5453만 원, 통신기술 5828만 원, 영업기획 5231만 원 순이었음

■ 2위부터 10위까지는 순위별 연봉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지만(6000~5086만 원), 1위와 2위의 평균 연봉차이는 2333만 원에 달해 큰 격차를 보임

- 반면 대졸 신입 직장인들의 초임 연봉은 금융과 비금융 직종 간에 큰 차이가 없었음
- 금융 분야 종사자들은 해당 직군에서 10년 이상 버티기 힘들지만 일단 살아남으면 보상이 다른 직군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2) “처머니”(동아일보 2011.3.17) 참조

3) “10년차 연봉 가장 높은 직종은?”(동아일보 2011.3.17) 참조

□ 경주 최부잣집에서 배우는 착한 성공의 비결⁴⁾

■ 300여 년간 12대에 걸쳐 이어온 '경주 최부잣집'의 육훈(六訓)에서 돈과 명예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착한 성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음

①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은 하지 마라

- 큰 벼슬을 하면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으니 권력에 탐욕을 갖지 말고 휘둘리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
- 최부잣집은 권력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대신 돈과 명예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편을 택하여 오랫동안 부와 명예를 유지하였음

②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 재물이 넘치면 주변의 시기와 질시를 받게 되고 장기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최부잣집은 일정규모의 논만 소유했으며 논을 더 사더라도 1만 석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소작료를 낮춰 존경을 받았음

③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 조선시대에는 흉년이 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죽지 않기 위해 갖고 있는 논과 밭을 헐값에 팔았음
- 하지만 최부잣집은 다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이용해 잇속을 챙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가르치며 경계하였음

④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 최부잣집에 과객이 많을 때엔 일백 명이 넘었다고 하며 과객이 떠날 때엔 과메기, 하루 양식, 노갓돈을 챙겨서 보냈다고 함
- 최부잣집의 넉넉한 인심이 전국으로 퍼져 동학혁명 당시 농민들이 최부잣집만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고 함

⑤ 주변 100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 남을 도우라는 의미로 최부잣집의 일년 소작 수입은 삼천 석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 천석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썼다고 함
- 이 같은 원칙은 11대 최부자 최현식이 활빈당에 의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최부잣집의 도움을 받았던 농민과 거지들이 자발적으로 활빈당을 물리치면서 빛을 발했음

⑥ 시집 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 무명옷은 현대 기준에서 보면 '서민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음
- 최부잣집은 시집 온 며느리들에게 무명옷을 입혀 검소함을 몸에 배게 하고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였음

4) “만석 이상 재산은 사회에 돌려 주라”(이코노믹리뷰, 2011.2.1) 참조

□ 실패의 원인은 외면(外面)

개인이나 조직이나 성공의 공식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위기(危機)가 닥쳤을 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는 역설적인 표현 또한 가능하다. 당연히 위기가 위기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세상에는 성공한 개인이나 조직이 실패한 개인이나 조직보다 더 많아야 한다(게으른 개인이나 조직이 항상 있기 때문에 실패는 어떤 경우든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평범한 사실은 위기를 인간이 미리 알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많은 실패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 사회의 많은 지적 탐구가 위기를 미리 알고자하는 데 초점을 맞춰온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과학적인 연구 성과는 흔히 보는 실패의 이유가 위기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에 대처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대처 방법도 대부분의 경우 새롭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또한 밝혀냈다. 남미의 잉카와 마야 문명 그리고 현재의 캄보디아에 번성했던 크메르 문명이 몰락할 시기 당시 사람들이 그들 문명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것까지 해결 시도가 남긴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런 노력을 더 발전시키지 못했고 이들 문명은 몰락하게 되었다.

2010년에 미국의 레베카 코스타(Rebecca Costa)가 펴낸 “The Watchman's Rattle(한국어로는 ‘지금 경계에서’의 제목으로 2011년 출간)”에서는 이의 이유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비이성적인 반대다. 위기가 닥쳤다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으려하거나 어떤 대안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문제를 개인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위기가 그동안 축적되어온 내부적인 모순이나 자연환경의 변화에 더 큰 원인이 있음에도 특정한 개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 쉽다는 것이다.

셋째, 상관관계(correlation)를 인과관계(causation)로 해석하는 것이다. 인간의 태어남과 특정 별자리가 우연히 일치했다고 해서 이것이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점성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며 이런 접근방법을 위기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넷째, 고립된 사고다. 여태까지 배워왔고 믿어왔던 사고체계 안에서만 생각하려 하고 이를 벗어나서 문제를 새롭게 보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과도한 경제적인 계산이다. 모든 일을 이해득실을 따져 접근하거나 화폐 단위로 평가함으로써 위기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실기(失機)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다섯 가지 장애가 개인이나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대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는 잦아들 수밖에 없고 근거 없는 비이성적인 믿음에 의존하게 되어 결국 실패나 몰락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남미의 잉카나 마야 문명 말기에 당시 사회에 닥친 문제의 근원을 태양신의 노여움에서 찾고 이를 해결하고자 태양신을 더욱 숭배하면서 산 사람의 심장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즐기치게 진행했던 것이 증거하고 있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진실에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기적을 믿는 것은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기까지다. “어떻게 일이 해결되겠지”, “이전에도 그랬는데 괜찮을 거야” 등등의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개인이나 조직은 실패에 그 만큼 가까이 다가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일은 한 개인이나 사회가 이룩해 온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존재 자체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작업을 수반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보다 실패를 접하는 것이 더 쉬운 이유일 것이다.

“ 두 가지 역사적 요인이 인간의 진보를 더디게 해왔다.
첫째는 미래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overconfidence). 둘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중요성에 대한 ‘과소평가’(underestimate)이다. ”

- 정주영(1915~2001) : 한국의 기업가